자생식물 자원화 현장토론회

신원섭 산림청장은 22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열린 '자생식물 자원화 현장토론회'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고사리 재배단지를 둘러봤다.

신원섭 산림청장, 소나무 채종원 방문

신원섭 산림청장은 16일 충남 태안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면지소 소나무 채종원을 방문해 소나무 종자 채취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추산업 발전 현장간담회 개최

산림청은 23일 충북 보은군 대추연구소에서 대추재배 임업인을 대상으로 '대추산업 발전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한·중 FTA 등 해외시장개방과 관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 등 대추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섭 산림청장, 한국임업후계자 대회 참석

신원섭 산림청장은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공설운동장에서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미래의 약속'이란 주제로 열린 '제23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 대회'에 참석했다.

신 청장은 "국토녹화의 주역이자 산림복지의 선두를 책임지고 있는 임업후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산림사업 융자금리 완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임업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점검

신원섭 산림청장은 9~10일 지난해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했던 제주도를 방문, 문화재보호구역 등 재발생 지역을 헬기를 타고 둘러보고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 청장은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접견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소나무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2019년까지는 완전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산불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자체평가회의 개최'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자체평가회의 개최(10.8)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22일 실시하는 '산불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자체평가회의를 8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자체평가회의에선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근무자들이 참여해 가상 산불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상황 판단, 반별 임무, 유관기관 임무 및 역할 등을 사전 점검했다.

2015 제6차 세계산불총회, D-365 기념 걷기행사

아시아지역 처음개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위해 마련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내년 10월 개최되는 세계산불총회의 성공개최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걷기대회 행사를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일원에서 11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세계산불총회 D-365 기념 전광판 제막식 ▲산악인 허영호 대장과의 자유대화 ▲송추에서 우이령 정상까지의 걷기대회로 진행됐고, 주말 나들이를 위해 북한산을 찾은 시민 1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함께한 시민들에게 " 우리의 일터, 쉼터, 삶터인 숲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도록 예방활동에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내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불총회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밝혔다.※ 세계산불총회는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불관련 국제행사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의 효과적인 예방·관리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1989년 미국 보스턴에서 시작됐다.